

2020년 추석감사예배



wonjufellowshipchurch.org
원주시 세계로 1 4층
☎ 033) 744-3311
2018. 9. 9 시작
담임목사 이성욱 ■ 부목사 이희정



사람이 교회되는
원주함께하는교회

WONJU FELLOWSHIP CHURCH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추석감사에배

묵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1, 3절

-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성경봉독 시편 127편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선포 가족 중(설교문) 혹은 담임목사(영상설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감사봉헌 다같이 (돌아가며 지금까지의 감사를 하나씩 드립니다)

찬송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 4절

- 1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1.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예수님은 집을 짓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집의 기초가 중요한 것을 아십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집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이든, 교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짓고 있는 내 인생, 우리집, 우리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2.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안잡니다.(1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2절) 그런데 이렇게 애써도 집이 세워지지 않고, 성이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지만 세우고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 때문에 세워지고, 내 충성 때문에 열매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맡기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이 세우시면 평화가 넘칩니다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내가 세우고 지키지 않으니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넘치는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